

KIA 마운드 '직구'에 살아리랏다



양현종



홍건희



차명진



김기훈



문경찬



SK·LG 등 상위팀과 최근 8경기 5승 3패 양현종, 시즌 초반 부진 구속 살아나며 연승모드 홍건희·차명진·김기훈·문경찬 목직한 직구 장점 변화구와 볼배합 상대 공략...자신감 동반 상승

'강한 마운드'의 답은 직구다. KIA 타이거즈의 최근 상승세에는 토종 선발진의 힘이 있다. KIA는 지난 18일 1위 SK를 시작으로 LG, 키움 등 난적과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우려와 달리 KIA는 26일 경기까지 5승 3패를 수확하며 중위권 싸움에 청신호를 켜다. 양현종이 에이스의 면모를 보이며 마운드의 반등을 이끌었다. 4·5선발 경쟁 중인 홍건희, 차명

진, 김기훈도 선발 임무를 완수하며 팀에 승리를 안겨줬다. 이들의 최근 활약 뒤에는 직구 힘이 있다. 겨울 훈련이 부족했던 양현종은 경기를 풀어가면서 힘이 붙었다. 직구 편승이 상승하면서 양현종은 공격적인 피칭이 빛을 발하고 있다. 힘 붙은 직구를 바탕으로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로 상대 타이밍을 뺏으며 노련하게 상대를 요리해 가고 있다. 홍건희와 차명진, 김기훈도 직구가 먼저 떠오

르는 선수들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를 뿌리는 것은 아니다. 홍건희는 지난 20일 SK와의 홈경기에서 7이닝 3피안타(1피홈런) 1볼넷 7탈삼진 2실점의 호투를 했다. 볼넷 난조로 승리는 쟁기지 못했지만 승리의 주역으로 박수를 받았다. 5회까지 퍼펙트 행진을 한 홍건희의 이날 직구 최고 구속은 148km이었다. 하지만 홍건희는 밸런스를 바탕으로 한 140km 초반대의 목직한 직구로 좋은 승부를 펼쳤다. 홍건희는 "내가 150km를 던지는 투수 아니다. 구속에만 신경 쓰다보면 힘 비축을 못해서 긴 이닝을 못 간다"며 "밸런스로 던지는 느낌으로 공을 뿌리면 힘도 있고, 구속이 안 나오더라도 타자들이 중심에 맞닥치고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지난 22일 LG원정에서 시즌 3승에 성공한 차명

진의 이날 직구 최고 속도도 143km에 머물렀다. 상대를 움직이게 할 정도의 속도는 아니지만 좋은 구위로 정타를 피하고 있다. 자신의 장점을 잘 아는 차명진도 스피드가 아닌 구위에 욕심을 내면서 '볼넷'과의 싸움을 하겠다는 각오다. 지난 26일 키움전에 기록된 '고졸 루키' 김기훈의 프로 첫 승에도 직구가 있다. '제구 난조'에 발목 잡히면서 2군에서 재정비 시간을 보낸 김기훈의 시작은 좋지 못했다. 헛스윙 삼진으로 첫 타자를 돌려세운 김기훈은 세 타자를 연달아 볼넷으로 내보내며 위기를 자초했다. 하지만 삼진과 좌익수플라이로 실점 없이 1회를 넘긴 김기훈은 6.2이닝 1피안타 5사사구 4탈삼진 무실점으로 7번째 선발 등판을 마무리했다. 이 경기들 통해 김기훈은 프로 데뷔 후 첫 승을 거뒀다. 위기를 넘고 첫 승까지 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직구 자신감'이 있었다. 김기훈의 직구 위력을 잘 아는 벤치와 포수 한 승택은 직구 승부로 돌파구를 찾았다. 100개의 투구수를 기록한 김기훈은 이날 80개의 직구를 던지며 힘으로 선배들을 압도했다. 볼넷에서도 직구로 날개를 단 이들이 있다. 하준영과 전상현은 지난해에 비해 직구 스피드가 6~7km 이상 증가했다. 웨이트와 하체 운동에 비중을 두고 스피드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변화구 승부에도 여유가 생겼다. 동시에 자신감까지 상승하면서 두 사람은 KIA의 필승조로 활약하고 있다. 문경찬은 장기인 90km대의 슬로 커브를 봉인하고 직구로 승부를 하고 있다. 역동적인 투구폼과 자신감, 여기에 빠른 투구 템포까지 더한 문경찬은 직구로 마무리 자리를 꿰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정호

휴스턴전 시즌 6호 홈런 등 멀티히트...피츠버그 14-2 대승

'강장' 강정호(32·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방망이가 드디어 불을 뿜기 시작했다. 강정호는 27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시즌 6호 홈런을 포함해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터뜨렸다. 5타수 2안타 2타점 2삼진을 기록한 강정호는 4월 25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 이후 약 두 달 만에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8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한 강정호는 6-1로 앞선 6회 말 무사 2루에서 상대 팀 두 번째 투수 크리스 데벤스키를 상대로 좌월 투런 홈런을 기록했다. 볼 2개를 골라낸 강정호는 연거푸 헛스윙하며 불리한 볼카운트에 몰렸지만, 5구째 가운데 몰린 시속 135km 체인지업을 견어내 왼쪽 담을 넘겼다. 강정호가 홈런을 친 건 10일 밀워키 브루어스와 원정경기 이후 11경기 만이다. 강정호는 2회 첫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3회 2사 1루에서 좌전안타를 날렸다. 7회엔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휴스턴은 8회까지 2-9로 뒤지자 경기를 포기했다. 투수를 아끼기 위해 야수인 타이러 화이트를 마운드에 올렸다. 화이트는 시속 130km대의 '배링볼 급' 공을 던졌고, 피츠버그 타자들은 손쉽게 안타를 생산했다. 강정호도 11-2로 앞선 9회 무사 2·3루에서 화이트와 상대했다. 강정호는 가운데 몰린 미팅한



직구를 받아쳤지만,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피츠버그는 9회에 홈런 2개 등으로 6득점을 올리며 14-2로 대승했다. /연합뉴스

광주 FC, 천적 대전 깨고 첫 4연승 간다

K리그2 17R 29일 원정 상대 전적 6승5무9패 열세 거친 플레이 견제 관건

무패행진 중인 광주FC가 창단 첫 4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29일 오후 7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 시티즌과 2019 K리그2 1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개막 후 치른 16경기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 A매치 휴식이 이후 첫 경기였던 부천과의 홈경기에서 4-1 대승을 거뒀던 광주는 지난 16라운드 수원 FC 원정경기에서 2-0으로 이기며 무패 기록을 '16경기'로 늘렸다.

무엇보다 2위 부산아이파크가 16라운드에서 승점을 더하지 못하면서 광주가 4점 차 1위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광주는 1위 수성의 부담을 덜고 17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됐다. 하지만 욕심나는 기록은 있다. 바로 창단 첫 4연승이다. 탄탄해진 화력이 광주의 4연승 도전에 힘을 실어준다. 펠리페가 올 시즌 12경기에서 13골을 넣으면서 리그 다득점 1위로 공격 전면에 서 있다. 펠리페를 중심으로 두현석, 윌리안, 김정환 등 잉여들의 활약도 눈부시다. 중원에는 여름, 박정수, 최준혁의 삼각편대가 짜임새 있는 움직임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다. 공격진 뒤에는 든든한 수비진도 있다. 아슬마토프, 이한도 등이 중심이 된 수비진은 16경기를 8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승리를 완성하고 있다. 0.5점대의 실점률을 자랑하는 광주는 K리그

1.2 톨어 최소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큰 무대를 경험한 'U-20 월드컵 스타' 임원상도 광주의 4연승 도전에 힘을 실어준다. 임원상은 16라운드 수원원정에서 교체 투입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열세 만화가 또 다른 키워드다. 광주는 대전과의 맞대결에서 6승 5무 9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앞선 맞대결에서도 11차례의 슈팅(유효 6)을 날렸지만, 대전의 골문을 뚫진 못하고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대전의 거친 플레이와 체력을 견제해야 한다. 앞선 대결에서 대전은 21개의 파울로 광주의 공격을 저지했다. 올 시즌 7골을 합작한 키주, 박인혁의 콤비플레이도 경계해야 한다. 광주가 17경기 무패행진을 창단 첫 4연승으로 장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2주 연속 베스트팀

펠리페 'MVP'...윤평국·이한도·박선주 '베스트 11' 선정

16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인 광주FC가 2주 연속 베스트팀에 선정됐다. 광주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K리그2 16라운드 베스트팀이 됐다. 이에 따라 광주는 앞선 15라운드에 이어 다시 한번 최고의 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부천과의 15라운드 홈경기에서 4-1 대승을 거뒀던 광주는 지난 16라운드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는 자책골을 이끈 두현석의 스피드와 추가골을 넣은 펠리페의 공격력을 앞세워 2-0 승리를 신고했다. 이와 함께 광주는 16경기 연속 무패행진에 성공했고, 2위 부산아이파크를 승점 4점 차로 따돌리게 됐다. 한편 시즌 13호골에 성공하며 승리의 주역이 된



펠리페 윤평국 이한도 박선주

'해결사' 펠리페는 16라운드 MVP에 선정됐다.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낸 골키퍼 윤평국과 함께 수비수 이한도, 박선주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